2016년 01월 3주차

■ 연구원 소식

○ 2016년 1차 운영위원회 실시

- 날 짜 : 2016.01.11.(月) 오후 6시
- 장 소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의실
- 안 건 : 2015년 사업평가 및 2016년 사업계획 수립
- 내 용 : 2016년 첫 운영위원회의가 지난 1월 11일에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 사업평가와 2016년 사업계획을 논의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연구원 자체 카페 준비에 대한 여러 의견도 교환되었습니다. 힘차게 출발한 힘으로 2016년 성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 서울지역 신년하례회 실시

- 날 짜 : 2016.01.16.(土) 오후 5시
- 장 소 : 예묏골(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6동 4361)
- 내 용 : 새해를 맞아 수도권에 계시는 회원분을 모시고 신년하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내셔서 와주신 연구원 식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올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나눠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 제4회 보라매 글로컬 아카데미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 주 제 : 새로운 역사 서술의 가능성 - 내발론의 탈구축
- 강 사 : 김윤희(고려대 한국사연구소, GHS운영위원)
- 날 짜 : 2016.01.16.(土) 오후 3시
- 장 소 : 보라매 글로컬 아카데미 사무국 세미나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살레시오회 돈보스코센터>)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1월 18일(月) ~ 22일(金) : 연구원 내부 도서 정리

○ 01월 19일(火) : 정읍 학술연구용역사업 정산서 및 단행본 제출

■ 역사속의 오늘

○ 늦봄, 소천하다 - 1994. 1. 18

: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라 이야기되는 한반도의 두 나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일의 문턱까지 가기도 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 서로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기도 한다. 어언 71년째, 권력의 키를 쥔 위정자들의 놀음에 무도(無道)한 인민(人民)으로 밀려난 이들은 원수였다가 한핏줄임을 반복하는 역사의 희비극을 수놓아가고 있다.

이런 한반도 분단의 역사에 우뚝 선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늦봄이다. 그는 스스로를 늦봄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 봄은 봄(春)이 아니라 봄(視)였다. 즉 늦게 눈을 뜨고 늦게 보았다는 뜻으로 일종의 자책의 의미가 담긴 일컬음이었다.

한국에서 손 꼽히는 구약학자였던 그는 강단의 신학자였고, 성서 번역가였다. 히브리 민족의 연원을 하나의 혈연공동체가 아닌 하층 집단의 연맹을 일컫는 '하비루'(천민, 노예, 강도 등의 뜻)로 보았던 그는 구약성서를 관통하는 민중과 지배의 역사, 압제와 저항, 폭군과 예언자의 역사를 통해 '민중'의 중요성을 갈파하고 실천을 통해 그를 선언했다.

절친한 친구 장준하의 의혹 넘치는 죽음을 계기로 그는 얌전한 목사, 책상머리의 구약성서 번역자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를 향해 분노를 내지르고 새로운 세상의 빛을 뿌리는 예언자로 나선다. 내 겨레에게서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이들을 향하여 포효했고 못된 놈들에게 등쳐 먹히는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규하는 맹렬한 시인으로 내닫는다. 늦바람만 무서운 게 아니라 늦봄도 무서웠다. 1976년 "늦게 세상을 본"이후 그가 죽은 1994년까지의 18년 동안 그는 11년이 넘도록 감옥에 있었다. 야곱의 돌베개 따위는 그의 고행에 비하면 일도 아니었고, 엘리야가 잡아먹은 메뚜기도 11년이 그의 입에 넣어야 했던 관식보다 맛이 달았을 것이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가 아닌 열정적인 시인이었다. 강만길 선생께서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표현했던 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심성을 지녔던 그는 사람들의 상상의 저편을 넘어서는 과감한 행동을 종종 선보였다. 1989년 봄의 북한 방문은 그 대표이자 절정이었다.

1994년 1월 18일 늦봄이 죽을 때까지 맑게 빛났던 눈을 감았다.
"우리 지친 어깨 일으켜... 부활의 언덕을 오르자"는 다짐의 노래 속에 그를 보낸 지 22년. 한반도의 하늘은 여전히 흑빛이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가 아닌 열정적인 시인이었다. 강만길 선생께서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표현했던 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심성을 지녔던 그는 사람들의 상상의 저편을 넘어서는 과감한 행동을 종종 선보였다. 1989년 봄의 북한 방문은 그 대표이자 절정이었다.

1994년 1월 18일 늦봄이 죽을 때까지 맑게 빛났던 눈을 감았다.

"우리 지친 어깨 일으켜... 부활의 언덕을 오르자"는 다짐의 노래 속에 그를 보낸 지 26년. 한반도의 하늘은 여전히 흑빛이다.

○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탄생 - 2000. 01. 22

: 한국프로야구는 1982년 OB 베어스, MBC 청룡, 해태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삼미 슈퍼스타즈 등 6개 구단의 출범으로 시작된 후 1986년 빙그레 이글스가 출범하면서 7개 팀으로 늘어났다. 당시 프로야구 출범배경에 대해서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후 전두환 정권이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시작한 3S(screen・sex・sports)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34년이 지난 지금 프로야구는 이미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됐다. 그런 한국 프로야구가 2000년 1월 22일 "존폐의 위기"에 몰렸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존폐의 위기"라고 누군가가 몰아간 날이었다. 그 누군가는 프로야구 구단주들이었다. 그들은 이날 새벽 한 시 75인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프로야구 선수협의회'를 결성하자 구단들은 그들을 모두 방출하고 '직장폐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문제를 두고 100분토론에 나온 KBO 사무차장 이상일은 "선수협이 노조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그 '불순함'과 '배후세력' 운운하다가 사회자 정운영에게 핀잔을 받았을 정도로 프로야구 '선수협 사태'는 가히 한국 사회에서 흔히 발생했던 '노사대결'의 축소판이자 축약판이었다.

'친목단체' 선수협을 만든다고 해도 '노조'를 만드는 것이고 '노조'는 불순한 것이며 한 하늘을 두고 살 수 없다는 삼단논법을 구사하는 구단주들 앞에서 그들은 자신보다는 구단의 말 한 마디에 찍 소리를 못하고 보따리를 싸야 하고, 협상은 커녕 주는 대로 받으면서 "싫으면 관둬" 한 마디에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후배들과 2군 선수들을 위해 선수협이 필요하다는 결심을 굳혔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한화이글스의 송진우는 "왜 고액연봉자인 당신들이 구태여 이렇게 하느냐"고 건조하게 캐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었다. ""고액 연봉자들이 왜 이러느냐구요? 아니 당연히 우리가 총대를 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이해 안돼요? 연봉 천 만원 받고도 감사합니다 하는 애들이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우리한테도 지금 이렇게 대하는데 걔들이 나서 봐요. 어떻게 되나."

자본의 논리 앞에 무력하기만 한 무명선수들과 2군 선수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깃발을 든 이들은 선수협의회 없이도 배터질만큼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었다. 상대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미약하지만 자신이 가진 힘을 자신보다 못한 이를 위해 사용한 경우는 상상 외로 드물다.

2000년 1월 22일은 그런 이들이 간만에 우리 역사에 출현했던 날이었다.